

사십절의 숨겨진 역사 — 민수기 이십삼장

에스겔 제4번

Jeff Pippenger

2026-08-09

에스겔은 “애통하는 선지자”로 불리는데, 이는 그가 그의 책 제9장에서 그 땅과 교회 가운데서 행하여지는 가증한 일들로 인하여 애통하는(한숨 쉬며 부르짖는) 십사만 사천의 상징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난 글에서 인용한 『증언집』의 그 구절에서 화잇 자매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선지자 자신도 낯선 땅에 있는 나그네였는데, 그곳에서는 한없는 야망과 잔혹한 포학이 최고 권세를 떨치고 있었다. 그가 인간의 압제와 불의에 관하여 보고 들은 것은 그의 영혼을 괴롭게 하였고, 그는 밤낮으로 심히 애통하였다.”

십사만 사천은 에스겔이 사로잡혀 간 것으로 표상된 바와 같이 흩어진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들”이다. 에스겔 9장에 나타난 인치는 요한계시록 7장의 그것과 동일하며, 이 두 장은 모두 마지막 날들에 일어나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다.

“하나님의 종들을 인치는 이 일은 에스겔에게 이상 가운데 보이신 바로 그 동일한 것이다.” Testimonies to Ministers, 445.

보좌로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룹들을 지휘하시고, 그룹들은 다시 바퀴들을 다스린다. 에스겔은 그 환상을 통하여, 모든 것이 혼란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던 그 기간에도 하나님께서 주권을 쥐고 계심을 깨달아야 했다. 화잇 자매는,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의 조직과 땅의 일을 관리하는 그룹들을 제시한 후, 그리스도께서 일곱 교회 사이를 거니시는 성소 안에서의 요한을 묘사하면서 “이와 같이”라고 말한다. 에스겔과 요한은, 영감의 기록대로 “우리 세상에서 전개될 장면들은 아직 꿈에도 생각지 못한 것”인, 십사만 사천의 인치는 때에 사는 자들의 상징이다.

확실히 화잇 자매가 그 말들을 기록했을 때에는 그 말들이 참되었으나, 인치는 때에 이르러 그것들은 완전한 성취를 발견한다. 이십 년 전쯤에, 지금 세상에서 이슬람의 메뚜기 떼의 창궐과 맞물려 일어나고 있는 일이 있으리라고 누가 생각했겠는가? 요한계시록 9장에서 이슬람의 상징으로 제시된 메뚜기에는, 자연계에서 북아프리카 메뚜기들의 이동도 포함된다. 아프리카의 그 떼 지어 나는 메뚜기들의 이동 경로는 이슬람이 점령했던 지리와 일치한다. 이슬람은 이스마엘의 후손이며, 이스마엘의 어머니는 하갈이었다. 하갈은 “비행” 혹은 “도피하다”를 뜻한다. 아랍어에서 그 이름은 보통 하자르(هجر)로 표기되며, 우리에게 히즈라(무함마드의 이주/도피)라는 말을 주는 바로 그 어근과 연결되어 있다. 이슬람의 뿌리는 메뚜기 떼의 창궐과 연관될 뿐만 아니라, 그 뿌리에는 이주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불법 이민이 이슬람의 메뚜기의 한 발현이라는 사실을 누가 감히 상상이나 했겠는가?

누가 세계적 공산주의자들이 이슬람 무리와 동맹을 맺으리라고 꿈에라도 생각하였는가? 이슬람과 세계주의자들의 용의 권세는 각각 요한계시록 9장과 11장에서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며, 무저갱은 사탄적 권세의 한 발현을 나타낸다. 진리의 성경에 따르면, 현재의 이 두 동맹 세력은 모두 사탄의 도구들이다.

“그들이 자기들의 증언을 마칠 때에 [마쳐 갈 때에],’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하기로 되어 있던 기간은 1798년에 끝났다. 그들이 은밀함 가운데서 자기들의 일을 마치는 시점에 가까워지고 있을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으로 표상된 세력이 그들을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키게 되어 있었다. 유럽의 많은 나라들에서 교회와 국가를 다스리던 권세들은 수세기 동안 교황권을 매개로 하여 사탄의 지배를 받아 왔다. 그러나 여기에는 사탄적 권세의 새로운 발현이 제시되어 있다.” The Great Controversy, 268.

여기서 화잇 자매는 프랑스 혁명 시기에 사회주의의 도래를 지적하는 한편, 사탄이 또한 교황권을 지배하고 있음을 언급한다. 교황권 역시 요한계시록 17장에서 무저갱에서 올라오며, 요한계시록 9장에서는 이슬람이 무저갱에서 올라온 연기이다. 요점은 여전히 남아 있다. 과연 영감은 참으로 “우리 세상에서 전개될 장면들은 아직 꿈에서조차 생각되지 않았다”고 의미하였는가? 오늘날 이슬람이 유럽 전역에 퍼지고 이제는 아메리카 대륙으로 내려오게 되리라고 누가 꿈꾸었는가? 당신은 메뚜기들이 국제연합, 유럽연합, 그리고 미국 민주당의 세계주의자들에 의해 온 지구에 퍼지게 되리라고 꿈꾸었는가?

누가 교육 기관들이 공산주의와 이슬람의 동맹에 의해 잠식되리라고 꿈에나 생각하였겠는가? 그런데 지금 그 동맹은, 자기들의 세금이 그 세금을 제공하는 나라를 파괴하는 데 사용되리라고는 결코 의도하지 않았던 시민들의 세금으로 지원을 받고 있다.

누가 영국이 이슬람에 의해 백인 소녀들이 집단 강간당하고, 납치되어 감금되며 살해당하는 일을 조장하고 옹호하게 되리라고 상상했겠는가? 많은 사람들은 인류 역사상 존재했던 모든 공산주의 체제가 완전한 실패였다는 사실을 지적하지만, 영국 사회주의의 열매 역시 그 체제의 경제적·정치적 철학이 실패한 것만큼이나 사회주의에 대한 정죄이다.

누가 땅의 상인들이 천칠백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대량 학살하기 위하여 독약을 들여오도록 허락받게 되리라고 꿈이나 꾸었겠는가?

조지 소로스, 빌 게이츠, 그리고 앤서니 파우치와 같은 자들이 그들의 악마적인 악행을 아무런 결과도 없이 자행하도록 허용되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

화이트 자매가 전개될 장면들이 꿈에도 생각지 못할 것이라고 진술했을 때, 그녀는 그것을 십사만 사천의 인치는 때의 문맥에서 말한 것이었다. 그녀는 마태복음 24장에서의 그리스도의 경고에 대한 자신의 논평을 이어가며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이 교훈들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굳게 두어야 한다. 이는 바로 우리 앞에 사람들의 영혼을 시험할 때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는 감람산 위에서 당신의 재림에 앞서 일어날 두려운 심판들을 되풀이하여 말씀하셨다.”

그녀가 방금 언급한 교훈들은, 성소 안에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주관하고 계심을 이해하도록 배우는 에스겔과 요한, 이 두 사람의 예증들이었다. 지금 진행 중인 혼란과 반역, 곧 역사가 앞으로 나아감에 따라 더욱 격화될 그 혼란과 반역 가운데서, 에스겔과 요한이 성전 안에서 그러하듯이, 또한 이사야로도 표상되는 하나님의 사자들은, 우리가 한 번도 상상해 보지 못한 일들까지도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이해할 때에만,

주께 영광을 돌리는 방식으로 역사를 헤쳐 나가게 될 것이다.

다른 바퀴들과 교차하는 그 바퀴들에는 전혀 상상되지 않았던 사건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것들은 9/11에 시작된 인치는 시기에 일어나는 사건들이다. 배워야 할 교훈들은 오직 믿음으로 지성소에 들어가 법궤로부터 비추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빛을 보는 자들에 의해서만 배워진다. 그 영광이 다니엘서 10장에서 다니엘로 표상된 바와 같이 목도될 때, 그 빛으로 유익을 받는 무리는 그 이상에서 도망한 자들로부터 분리된다.

나 다니엘만이 그 환상을 보았고, 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은 그 환상을 보지 못하였으나, 큰 떨림이 그들에게 임하였으므로 그들이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다니엘 10:7.

이전 글의 그 구절로부터 이끌어 낼 수 있는 것은 훨씬 더 많지만, 이 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바퀴 하나를 다루고자 한다. 우리는 지난 글에서 숫자 이십오의 상징성을 살펴보고, 그에 앞서서는 숫자 삼십에 관하여 시간을 들여 고찰하였다. 에스겔서에서 비추어 오는 빛은 단지 상징적인 숫자들만은 아니지만, 혼란 속에서 얼마간의 명료함을 이끌어 내기 시작하기에 앞서 그 숫자적 상징들 가운데 몇 가지에 먼저 익숙해지는 것은 유익한 일이다.

열일곱

세 개의 이백오십 년 예언은 서머나 교회의 역사가 끝나는 시점에서 시작되는 십칠 년의 기간을 지목한다. 313년부터 330년까지의 십칠 년은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는 일을 예표한다.

기원전 457년에 시작된 이백오십 년은 기원전 207년에 끝났는데, 이는 라피아 전투 후 칠 년이 지난 때이며 파니움 전투 전 십 년이 되는 때였다. 라피아로부터 파니움까지는 십칠 년이었으며, 이것은 다니엘 11장 11절부터 15절까지에 제시된 바 제40절의 숨겨진 역사를 나타낸다.

프톨레마이오스 4세 필로파토르(프톨레마이오스 4세로도 알려짐)는 기원전 217년에 라피아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통치자였다. 그는 기원전 221년부터 기원전 204년까지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이집트의 왕(이자 파라오)으로 통치하였으므로, 그의 재위 기간은 17년이었다. 그는 라피아 전투 이전에 통치를 시작하였으나, 파니움 전투 이전에 죽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대표하는 라피아 전투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서 색깔 혁명을 일으킨 2014년에 시작되었다. 남방의 왕 프톨레마이오스 4세는 2000년에 통치를 시작한 블라디미르 푸틴을 예표하는데, 그 해는 2001년에 시작된 십사만 사천의 인침에 앞선 해였다. 프톨레마이오스의 경우와 같이, 푸틴도 2014년에 시작된 라피아 전투로 예표된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 통치를 시작하였다. 파니움 이전에, 프톨레마이오스로 예표된 바와 같이 푸틴은 제거된다. 푸틴은 2000년에 통치를 시작하였으며, 따라서 이는 이듬해인 2001년에 시작된 인침의 때의 시작과 일치한다. 프톨레마이오스로 상징된 바와 같이 상징적 17년은 푸틴이 통치하는 기간을 밝혀 주며, 그는 인침의 때 동안 그렇게 한다.

기원전 457년에 시작된 이백오십 년의 결말로 표상되는 트럼프는, 라피아 전투에서 시작되는 십칠 년의 길이를 지닌 동일한 숨겨진 역사 속에 위치한다. 용(푸틴)과 거짓 선지자(트럼프)는 그 숨겨진 역사 안에 위치한다. 그 역사 속에서, 교황권을 상징하는 “네 백성 중 강포한 자들”로 표상된 짐승은 라피아에서 파니움까지의 십칠 년의 끝에 위치한다.

321년은 미국의 일요일 법을 상징하며, 321년은 313년의 밀라노 칙령으로부터 330년의 제국 분열에 이르는 17년 기간 안에 위치한다.

요시야의 대유월절이라 불리는 때로부터 표상된 역사는 유대인의 열일곱 번째 희년 주기를 시작한다.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부흥인 요시야의 유월절로부터 10월 22일에 이르기까지의 역사는, 1840년 8월 11일부터 1844년 10월 22일까지의 밀러 운동의 역사를 표상할 뿐 아니라, 더욱 중요하게는 9/11로부터 일요일 법에 이르는 역사를 표상한다. 십사만 사천의 인치는 시기는 요시야로부터 10월 22일까지의 열일곱 번째 희년 주기로 표상된다. 열일곱은 인치는 시기의 중대한 사건들과 연관된 상징이며, 숫자 열일곱은 에스겔의 바퀴들이 교차하는 지점이다.

다니엘 40절의 숨겨진 역사에서, 같은 장 10절부터 15절까지에 나타난 바와 같이, 용은 프톨레마이오스의 통치에 의해 숫자 “17”과 연관된다. 11절의 라피아 전투로부터 15절의 라피아 전투에 이르는 역사는 “17”년이다. 그 역사는 도널드 트럼프를 그 두 전투로 표상된 17년의 한가운데에 위치시킨다. 트럼프에 의해 미국에서 형성되고 세워지는 짐승의 우상은 313년부터 330년까지의 “17”년으로 표상된다. 에스겔 1장 1절에서 에스겔은 “17번째” 희년 주기의 30번째에 있다. 당신은 숫자 17이 에스겔이 지성소에서 본 바퀴들 가운데 하나를 나타낸다고 꿈에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에스겔은 인침의 때에 믿음으로 지성소에 들어간 자들을 상징한다. 그들은 베드로의 제사장들이다.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지니라. 베드로전서 2:5.

그들은 하나님의 옛 언약 백성에게 한 기별을 전하도록 위임받았으나, 그때에 그들은 지나침을 당하고 있으며, 비록 하나님의 옛 언약 백성이 보지도 듣지도 못하리라는 경고를 미리 받았을지라도 그러하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 배로 먹고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네 창자를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그것을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로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말하라. 네가 보내심을 받은 것은 말이 이상하고 언어가 어려운 백성에게가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니라. 말이 이상하고 언어가 어려워 그 말을 내가 알아듣지 못할 많은 백성에게가 아니니라. 내가 참으로 너를 그들에게 보냈더라면, 그들이 네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네 말을 듣고자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내 말을 듣고자 하지 아니함이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뻔뻔하고 마음이 완고함이니라. 보라, 내가 네 얼굴을 그들의 얼굴에 맞서 강하게 하였고, 네 이마를 그들의 이마에 맞서 강하게 하였노라. 내가 네 이마를 부싯돌보다 더 단단한 금강석 같게 하였으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보고 놀라지 말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니라.

에스겔 3:3-9.

에스겔은 밀러 운동의 역사에 나타난 개신교도들과 말세의 라오디게아 상태에 있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로 대표되는 옛 언약 백성에게 한 기별을 선포하도록 명령을 받는다. 그가 그 기별을 선포하기를 거절한다면, 경고를 받지 못한 채 남겨진 자들의 피가 그에게 돌아갈 것이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그러므로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니라.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는데도 네가 그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며, 그 악인을 그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게 하여 그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말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 가운데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네가 악인에게 경고하였는데도 그가 그의 악함과 그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 가운데서 죽으려니와, 너는 네 영혼을 건지리라. 또 의인이 그의 의에서 돌이켜 죄악을 행하고, 내가 그 앞에 걸림돌을 두면, 그는 죽으리니, 네가 그에게 경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자기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며, 그가 행한 그의 의는 기억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의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네가 의인에게 경고하여 그 의인으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였고, 그가 죄를 범하지 아니하면, 그는 경고를 받았으므로 반드시 살 것이요, 또한 너는 네 영혼을 건지리라. 에스겔 3:17-21.

에스겔서의 처음 '열한' 장에서 그는 그발 강가와 평지와 예루살렘에서의 이상들을 통하여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게 된다. 그는 예루살렘에 임박한 심판에 대한 경고를 선포하도록 위임받는다. 예루살렘에 임박한 심판에 대한 이 경고의 기별은 먼저 라오디게아 상태에 있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에 주어진 경고이다. 그 경고는 하나님의 인을 소유하지 아니한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심판과 거절을 밝히 준다. 에스겔로 예표된 이 경고는 곧 다가올 일요일 법에 대한 경고이다.

이러한 진리들이 제시되는 그 첫 열한 장에서 에스겔은 말 못하게 되었고, 그 후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의 입을 여실 때에만 말하였으며, 이러한 상태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이르기까지 계속되다가, 그때에 이르러 그가 다시 말할 수 있게 되었다.

그때에 영이 내게 들어와 나를 내 발로 서게 하시니,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네 집 안에 틀어박히라. 그러나 너, 인자야, 보라, 그들이 네게 줄을 드리워 그것으로 너를 결박할 것이요, 너는 그들 가운데로 나아가지 못하리라. 또 내가 네 혀가 네 입천장에 붙게 하여 네가 병어리가 되게 하리니, 네가 그들에게 책망하는 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는 그들이 반역하는 족속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는 네 입을 열리니, 네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지 아니할 자는 듣지 아니할지니, 이는 그들이 반역하는 족속이기 때문이다. 에스겔 3:24-27.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을 때, 에스겔은 다시 한 번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의 사로잡힌 지 열두째 해, 열째 달, 그 달 다섯날에 예루살렘에서 도피한 자 하나가 내게 이르러 말하기를, 그 성읍이 함락되었다 하였더라. 그 도피한 자가 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임하사, 그가 아침에 내게 이르기까지 내 입을 여셨으므로, 내 입이 열려 나는 다시는 말 못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였더라. 에스겔

33:21, 22.

예루살렘의 멸망은 마지막 시대에 라오디게아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의 멸망을 상징한다. 그 멸망은 9장에서 예루살렘 안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그때에 승리하는 교회로 들어 올려지는 동안에 일어난다. 예루살렘 안에 있는 라오디게아인들은 제거되고, 영광의 왕국이 세워질 때 십사만 사천이 높임을 받는다. 그 영광의 왕국은 십자가에서 은혜의 왕국이 세워짐으로 예표되었다. 십자가에서의 은혜의 왕국은 일요일 법에서의 영광의 왕국과 서로 상응하며, 이 두 왕국은 에스겔서에 제시된 예언적 역사의 연속적인 순서 속에 놓여 있다. 에스겔서를 성소의 문막 안에 둘 때, 처음 열한 장은 하나님의 백성이 알곡과 가라지로 구성된 것으로 규정되는 전투하는 교회에서 오순절의 밀 제물로 이루어진 승리하는 교회로 변화되는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정결케 되는 일에 관한 것이다.

또 너, 이스라엘의 속되고 악한 왕아, 네 날이 이르렀으니, 곧 죄악이 끝에 이를 때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관을 벗기며 면류관을 제하라. 이것이 다시는 전과 같지 아니하리라. 낮은 자를 높이며 높은 자를 낮출지니라. 내가 그것을 엮고, 엮고, 또 엮으리니, 그가 오기까지는 다시 있지 못하리라. 그는 그것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라. 내가 그것을 그에게 주리라. 에스겔 21:25-27.

시드기야는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으며, 그는 이 구절들에서 "그 날이 이른 이스라엘의 악한 왕"이다.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려 하고 있었고, 시드기야의 면류관은 바벨론에 의해 제거될 예정이었으며, 바벨론은 메대와 바사에 의해 전복되고, 메대와 바사는 다시 헬라에 의해 전복되며, 헬라는 로마에 의해 전복될 것이었다. 세 번째 전복은 로마에 이르러 이루어지는데, 이는 "그 권리가 그에게 있는" 왕이 십자가에서 그 나라를 세우실 때 은혜의 나라의 면류관을 받으시는 역사이다.

“‘망령되고 악한 통치자’에게 최후의 심판의 날이 이르렀다. ‘관을 제하며,’ 주께서 명하시기를, ‘면류관을 벗길지어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당신의 왕국을 세우실 때까지는 유다가 다시 왕을 두는 것이 허락되지 아니하였다. ‘내가 그것을 엮고 엮고 또 엮을 것이라,’ 이것이 다윗 집의 보좌에 관한 하나님의 칙령이었으며, ‘이것도 다시 있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기까지 내가 이것을 그에게 주리라.’ 에스겔 21:25-27.” 『선지자와 왕』, 451.

산 비가 내리는 때에, 곧 9/11에 산 자에 대한 심판이 시작되었을 때에 시작된 그 시기에,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영광의 왕국을 세우신다.

“네 천사가 놓아줄 때에,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왕국을 세우실 것이다.” Spalding and Magan, 3.

준비의 기간이 9/11에서 시작되며, 일요일 법령 때에는 영화로운 거룩한 산이 모든 작은 산들과 큰 산들 위로 높이 들리게 된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와 그의 집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작은 산들 위에 높이 들릴 것이며, 모든 민족이 그리로 흘러갈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와 그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여호와와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이사야 2:1-3.

9/11에 바람들이 놓였다가 다시 불들렸으며, 이로써 온 땅에 가득 차는 산에서 뜨인 돌로 표상된 다니엘서 2장의 왕국이 세워지기 시작하는 때가 표시되었다.

“이 이상은 1847년에 주어졌는데, 그때에는 안식일을 지키는 재림 신자 형제들이 매우 적었고, 그들 가운데서도 안식일 준수가 하나님의 백성과 믿지 않는 자들 사이에 선을 그을 만큼 충분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였다. 이제 그 이상의 성취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여기 언급된 ‘그 환난의 때의 시작’은 재앙들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쏟아지기 직전의 짧은 기간, 곧 그리스도께서 성소에 계시는 동안을 가리킨다. 그때에는 구원의 역사가 마쳐져 가는 동안 환난이 땅에 임할 것이며, 민족들이 분노할 것이나, 제삼천사의 사업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억제될 것이다. 그때에 ‘늦은 비’, 곧 주의 면전으로부터 오는 새롭게 하심이 임하여, 제삼천사의 큰 음성에 능력을 더하고, 성도들을 일곱 마지막 재앙이 쏟아질 때에 설 수 있도록 준비시킬 것이다.” Early Writings, 85.

그리스도께서는 늦은 비의 때에 그분의 영원한 왕국을 세우시며, 그분의 왕국은 십자가에서 세워진 은혜의 왕국과 또한 일요일 법령 때의 그분의 영광의 왕국을 포함한다. 시드기야로부터 바벨론(첫째 왕국), 메대-바사(둘째 왕국), 헬라(셋째 왕국), 그리고 이교 로마(넷째 왕국)에 이르기까지의 역사는 은혜의 왕국에 이르는 역사를 밝혀 준다. 그 역사는 교황권 로마(영적 바벨론, 다섯째 왕국)로부터 미국(영적 메대-바사, 여섯째 왕국), 국제연합(영적 헬라, 일곱째 왕국), 그리고 마침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삼중 연합에 이르기까지의 평행한 역사적 계열을 밝혀 주는데, 이들은 함께 현대의 로마(일곱 중에 속한 영적 로마, 여덟째 왕국)를 이룬다.

다니엘 2장에 나오는 그 왕국의 승리는 한 바위로 표상되며, 하나님의 신실한 자들은 성전의 돌들이다.

너희도 산 돌들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지니라. 베드로전서 2:5.

그 영원한 왕국은 세상 나라들을 이기고 온 세상을 가득 채운다. 에스겔 40장부터 그의 책 끝에 이르기까지, 바로 그 동일한 왕국이 생명수로 세상을 가득 채우는 성전으로 묘사되어 있다.

우리는 다음 글에서 이 내용을 계속 다루겠다.